

가지산 친환경 벌꿀

친환경 양봉산업육성 특화단지로 지정

‘영남의 알프스’라 불리는 울산 가지산에서 자연의 기운을 가득 담은 자연의 선물 ‘가지산 친환경 벌꿀’은 친환경 양봉으로 생산된 100% 순수한 벌꿀입니다.

꿀벌 사양관리에 있어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농입인 25명이 모여 울산친환경양봉 연구회(회장 이성배)를 구성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사후 품질관리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.

‘가지산 친환경 벌꿀’은 회원 봉군(3,000군)의 공동 작업 및 공동관리를 통한 생산 벌꿀의 철저한 품질 검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



우량종봉, 밀원식물 보급으로 생산성 증가

2008년 농림부 선정 친환경 양봉산업육성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우량종봉 생산 및 아카시아 대체 밀원식물 보급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

한편 울산친환경양봉 연구회는 ‘가지산 친환경 벌꿀’의 저장성 확보를 위한 저장시설을 확충하고, 직거래 및 친환경 농산물매장과의 거래를 통한 인지도 확보 등 엄정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홍보 및 판매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.

